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경로분석

임정혜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 The Path Analysi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unghye Lim  
Dept. of Nursing,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인관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상은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245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PASW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하였다( $\chi^2/df=1.170$ , GFI=.992, AGFI=.970, RMSEA=.027, CFI=.995, NFI=.967). 전문직 자아개념에 문화적 역량은 직접효과, 다문화 인식과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문화적 역량에 다문화 인식과 전공만족도는 직접효과, 대인관계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다문화인식에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면 다문화인식이 높아지고,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is a study path analysis for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MP), cultural competence(CC) and professional self-concept(PSC).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45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sed with PASW 18.0,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 $\chi^2/df=1.170$ , GFI=.992, AGFI=.970, RMSEA=.027, CFI=.995, NFI=.967). Based on path model CC showed a direct effect on PSC while MP, satisfaction in major(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IR) showed a indirect effect. The MP and SM showed a direct effect on CC while IR showed a indirect effect and SM and IR showed a direct effect on MP.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MP and CC for increasing of PSC.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Received 25 October 2017, Revised 28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unghye Lim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Email: bluejih22@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6년 1.9%에서 2016년 최초로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 약 36만명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하였고[2], 또한 다문화 혼인 비중도 2010년부터 약 10% 정도 차지하며, 2015년도에는 7.4%를 차지하였다[3]. 이러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확대와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의료계와 간호계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 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담당할 간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져 왔다.

다문화인식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에 적절하고 민감하도록 하는 의도적 인식과정으로[4], 즉 자신과 문화적 차이가 있는 사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지하고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지식, 기술, 인식으로 정의되며[5],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의 역량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이다[6]. 다문화인식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의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간호사에게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의 간호사들인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의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내에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1년 국내 150개 간호대학 중 28개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져 오고 있으며[7], 이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다문화경험과 문화적 역량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8]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킨 결과[7]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에서 다문화교육은 일부 학생들이 이수하는 선택 교과목으로서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준비과정 없이 임상실습을 하게 되고, 간

호사가 되어 외국인 환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변화에 맞추어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므로, 향후 변화의 흐름이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기에 이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문화의식 향상과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이 간호사로서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는 미미하였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9].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능력과 융통성이 포함된 전문직 실무, 자신의 업무에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만족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 열린 마음과 이해심을 의미하는 의사소통으로 형성되어 있다[10].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 간호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11], 이는 간호사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간호학생 시기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후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대상자들은 차별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방해 요인이 되어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2],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Arthur[13]는 간호의 미래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대상자 간호와 관련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향상,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전체 경로를 파악하는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던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 추가하여[14], 두 변수가 다문화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교육의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다.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추출한 국내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역량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 2.2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에 위치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 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15]에 근거하여, 총 260부를 표집 대상으로 자료 수집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1.1 다문화인식

본 연구에서는 Park 등[16]이 개발하고 Lim[1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영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1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79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3 이었다.

### 2.1.2 문화적 역량

본 연구에서는 Chae[18]가 개발하고 Lee[19]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문화적 인식 6문항, 지식 7문항, 민감성 12문항, 기술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 없음’ 1점에서, ‘자신 있음’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4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1이었다.

### 2.1.3 전문직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Arthur[10]가 개발하고 Sohng과 Noh[20]가 번역하고 Seo[21]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 문항으로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21]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5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는 t-test, ANOVA,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chi^2$ , Normed  $\chi^2$  (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9명(85.3%)이었고, 연령은 21세~24세가 124명(50.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157명(64.1%)이 없었으며, 2학년이 86명(35.1%)으로 많았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없는 학생이 134명(54.7%)로 많았으며,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보통 136명(55.5%), 만족 99명(40.4%), 불만족 1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음 145명(59.2%), 보통 100명(40.8%) 순이었고, 다문화간호 수강경험은 153명(62.7%) 이 없었고, 다문화 간호교육의 필요성에는 필요함 141명(61.0%), 조금 필요함 51명(22.1%), 매우 필요함 32명(13.9%), 필요하지 않음 7명(3.0%) 순이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57.1점, 문화적 역량은 160.0 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75.3점이었다<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는 학생( $t=2.674, p<.05$ )이 높았고,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군이 가장 높았고, 보통, 불만족 순이었다( $\chi$

<Table 1> Comparison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 = 245)

characteristics	n(%)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t/F/ $\chi^2$ (p)	M±SD	t/F/ $\chi^2$ (p)	M±SD	t/F/ $\chi^2$ (p)	
Gender	Male	36(14.7)	59.3±8.5	1.737	163.8±27.0	1.143	73.9±14.4	-.493
	Female	209(85.3)	56.7±6.3	(.090)	158.2±26.6	(.254)	74.8±9.4	(.619)
Age	<20	78(31.8)	58.0±7.4		157.0±24.0		76.1±7.2	
	21~24	124(50.6)	57.2±6.5	2.227	160.0±28.2	.352	73.8±10.6	1.165
	≥25	43(17.6)	55.3±5.8	(.110)	160.2±27.3	(.704)	74.4±13.3	(.314)
Religion	Yes	88(35.9)	57.1±6.5	-.054	158.4±23.7	.304	75.5±7.9	-1.033
	No	157(64.1)	57.1±6.8	(.957)	159.4±28.3	(.761)	74.1±11.3	(.302)
Grade	1st	85(34.7)	57.1±7.3		156.1±26.8		75.9±6.9	
	2nd	86(35.1)	56.2±6.6	3.404	159.2±25.6	5.843	74.8±10.9	7.839
	3rd	58(23.7)	57.9±5.8	(.333)	163.5±21.0	(.120)	74.4±9.6	(.049)
	4th	16( 6.5)	58.9±6.7		158.0±45.2		68.1±18.9	
Communicative foreign language	Yes	111(45.3)	58.4±7.0	2.674	160.1±29.0	.480	75.5±7.7	1.205
	No	134(54.7)	56.1±6.2	(.008)	158.4±24.7	(.631)	73.9±11.9	(.230)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ied	10(4.1)	52.4±9.4		148.6±24.9		65.0±24.1	
	Generally satisfied	136(55.5)	56.2±6.6	11.637	154.6±27.9	12.739	74.4±7.5	5.424
	Satisfied	99(40.4)	58.7±6.1	(.003)	166.3±23.5	(.002)	76.0±10.9	(.06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enerally good	100(40.8)	55.3±6.6	-3.595	156.0±21.7	-1.498	74.1±11.2	-.582
	Good	145(59.2)	58.3±6.5	(.000)	161.2±29.5	(.136)	75.0±9.5	(.561)
Participating cultural education	Yes	91(37.3)	58.5±5.9	2.470	162.1±29.4	1.280	75.1±8.6	.468
	No	153(62.7)	56.3±7.0	(.014)	157.4±24.8	(.202)	74.4±11.1	(.640)
Perceived necessit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ot need	7(3.0)	53.3±8.1		157.9±28.4		67.4±30.3	
	Low	51(22.1)	54.8±6.8	27.282	156.9±23.5	12.477	74.7±6.0	5.108
	Need	141(61.0)	57.4±6.1	(.000)	157.0±28.1	(.006)	74.8±8.0	(.164)
	Very need	32(13.9)	62.2±5.6		174.4±23.5		75.9±16.4	

† 무응답 제외,  $p<.05$

$^2=11.637, p<.05$ ).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t=-3.595, p<.05$ ), 다문화간호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t=2.470, p<.05$ )에 높았으며, 다문화간호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 경우 가장 높았고, 필요함, 조금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순이었다( $\chi^2=27.282, p<.05$ ).

문화적 역량은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가장 높았고, 보통, 불만족의 순이었고( $\chi^2=12.739, p<.05$ ), 다문화간호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 경우 가장 높았고,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조금 필요함의 순이었다( $\chi^2=12.477, p<.05$ ).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의 순이었다( $\chi^2=7.839, p<.05$ )<Table 1>.

### 3.4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r=.514, p<.05$ ), 전문직 자아개념( $r=.141, p<.05$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문화적 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 $r=.327, p<.05$ )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 3.5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df=1.170, GFI=.992, AGFI=.970, RMSEA=.027$ 로 나타났고, 충분한 적합지수  $CFI=.995, NFI=.967$ 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171$ ), 대인관계( $\beta=.166$ )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인식( $\beta=.487$ ),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131$ )의 경로계수도 유의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문화적 역량( $\beta=.327$ )의 경로계수도 유의하였다[Fig. 1].

대인관계가 좋고,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다문화인식이 높고, 다문화인식은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은 유의하였다.

### 3.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171, p<.05$ ), 대인관계( $\beta=.166, p<.05$ )의 직접효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 인식( $\beta=.487, p<.001$ ),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

<Table 2> Level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245)

Variables	Mean(SD)	Range(Min-Max)
Multicultural perception	57.1( 6.7)	40.0-75.0
Cultural competence	160.0(24.7)	98.0-231.0
Professional self-concept	75.3( 7.7)	53.0-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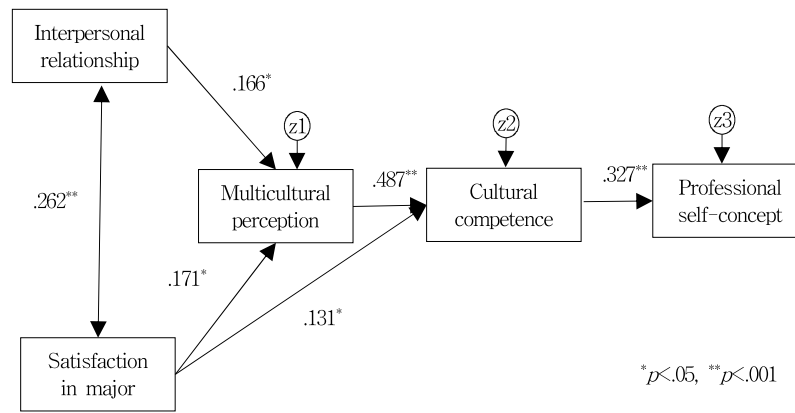
<Table 3> Correlation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245)

Variables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r(p)	r(p)	r(p)
Multicultural perception	1		
Cultural competence	.514(.000)	1	
Professional self-concept	.141(.034)	.327(.002)	1

$p<.05$

<Table 4> Goodness of Model

Fit Index	$\chi^2/DF$	GFI	AGFI	RMSEA	CFI	NFI
Optical model	$\leq 3$	$\geq 0.9$	$\geq 0.9$	$\leq 0.05$	$\geq 0.9$	$\geq 0.9$
Modified model	1.170 ( $p=.322$ )	.992	.970	.027	.995	.967



[Fig. 1] Path analysis for hypothetical model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	Direct effect( <i>p</i> )	Indirect effect( <i>p</i> )	Total effect( <i>p</i> )
Multicultural perception	← Satisfaction in major	.171(.009*)		.171(.009*)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66(.011*)		.166(.011*)
Cultural competence	← Multicultural perception	.487(<.001**)		.487(<.001**)
	← Satisfaction in major	.131(.023*)	.083(.017*)	.214(.006*)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81(.010*)	.081(.010*)
Professional self-concept	← Cultural competence	.327(<.001**)		.327(<.001**)
	← Multicultural perception		.159(.005*)	.159(.005*)
	← Satisfaction in major		.070(.006*)	.070(.006*)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6(.007*)	.026(.007*)

\**p*<.05, \*\**p*<.001

=.131, *p*<.05)의 직접효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문화적 역량의 직접효과( $\beta=.327, p<.001$ ) 모두 유의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 인식의 직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083, p<.05$ ), 대인관계( $\beta=.081, p<.05$ )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다문화인식( $\beta=.159, p<.05$ ),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070, p<.05$ ), 대인관계( $\beta=.026, p<.05$ )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다문화인식에 대한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171, p<.05$ ), 대인관계( $\beta=.166, p<.05$ )의 총 효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인식( $\beta=.487, p<.001$ ),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214, p<.05$ ), 대인관계( $\beta=.081, p<.05$ )의 총 효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문화적 역량( $\beta=.327, p<.001$ ), 다문화인식( $\beta=.159, p<.05$ ), 간호학 전공만족도( $\beta=.070, p<.05$ ), 대인관계( $\beta=.026, p<.05$ )의 총 효과 모두 유의하였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인식의 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57.1점(평균점 3.81점)으로 3.55점을 보고한 선행연구[22]보다 높았으며, 문화적 역량은 160.0점(평균점 4.82점)으로 4.98점을 보고한 결과[23]와 유사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간호교육에서 꾸준히 다문화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향상에 기여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75.3점(평균점 2.89점)으로 2.75점을 보고한 결과[1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에는 긍정적 간호관, 높은 자아개념, 개인의 자아체계가 영향을 미치므로[24], 간호교육 과정 내 이러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삼입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다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외국어 실력이 유창한 경우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았고[23], 대인관계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25]와 유사하다. 외국어가 유창하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과 대면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적을 것이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외국인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간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수용능력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26].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반면에,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간호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수강경험이 있고,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할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간호 교육프로그램 경험이 있고, 다문화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할수록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결과[23]와 유사하다.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인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인 대학생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다문화간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을 통해 다문화간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대상자의 문화, 가치, 신념까지 포용하는 간호를 제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문화적 역량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27]와 다문화 교육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8]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킨 결과[7]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다문화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간호교육 학습성과의 일 부분으로 다문화간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14]와 유사하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간호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갖게 되는데[29], 이는 임상실습 시 경험하게 되는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 부재와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문직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낮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간호대학과 임상실습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간호학생 실습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인식에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가 직접효과가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인식이 높았던 결과와 맥락이 같으며, 따라서 다문화 간호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의 능력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들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역량에 다문화인식은 직접효과가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경험인식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8]와 다문화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결과[30]와 유사하다. 또한 미국 간호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다문화의 요소를 포함시켜 교육시킬 때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31].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문화에 따른 가치, 태도, 신념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편견이나 차별 없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대상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다문화 대상자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32], 이를 위해 다문화인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인식은 건강제공자가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에 적절하고 민감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33],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으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추게 된다면 문화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문화적 역량은 직접효과, 다문화인식은 간접효과를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총체적 느낌과 견해로 정의되는 전문직 자아개념은[34] 간호전문직의 질적인 간호제

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이 높아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춘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자아개념도 높아지므로 미래의 다문화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전문적 간호관을 가지고 이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간접 효과가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14].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 학교 교육과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서 발달되고[20], 특히 간호교육 중 임상실습 교육이 간호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5].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저학년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학년에서부터 형성되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개념으로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연한 간호직에 대한 자아개념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져지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갈등과 혼돈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학년부터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으로 간호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강화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다문화간호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 함양이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모든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과 준비를 하고 임상실습에 임하도록 하며, 또한 임상에서는 현재 다문화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간호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과 전문직 간호개념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부족하므로 반복 연구로 일반화가 필요하고,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다문화인식이 높고, 문화적 역량도 높아지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높아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 의료 및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직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보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추후 일반화하기 위한 반복 연구와 대상자의 확대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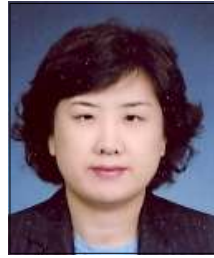
- [1] Ministry of Justice,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19&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19&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 August 30, 2017.
- [2] Mis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402&page=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402&page=1), August 30, 2017.
- [3]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2&vw\\_cd=MT\\_ZTITLE&list\\_id=A2\\_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2&vw_cd=MT_ZTITLE&list_id=A2_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August 30, 2017.
- [4] C. Munoz, J. Luckman, "Transcultural communication in nursing: Communication and human behavior for



- health science(2nd ed)", Cengage Learning, pp.11-24, pp.45-91, 2005.
- [5] H. N. Weaver,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CA: Thomson Brooks/Cole, 2005.
- [6] L. Purnell, "The Purnell model for 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3, No. 3, pp.193-196, 2002.
- [7] E. H. Peek, C. 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 43, No. 5, pp.690-696, 2013.
- [8] S. Y.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345-35, 2016.
- [9] H. L. Seo,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on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orker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0, No. 1, pp.153-178, 2014.
- [10]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thesis, Newcastle University of Australia, 1990.
- [11]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pp.285-292, 2007.
- [12] N. Y. Lee, E. N. Lee, E. Y. Park, "The Attitudes of nurses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9, No. 1, pp.241-250, 2013.
- [13] D. Arthu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 critical review" *J Advan Nurs*, Vol. 17, pp.712-719, 1992.
- [14] N. S. Ha, H. M. Park, "The impact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5, No. 2, pp.47-56, 2009.
- [15] G. S. Kim, "Analysis of structure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2007.
- [16] Y. K. Park, K. H. Sung, Y. D. Ch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 towards cultural diversity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0, No. 3, pp.1-28, 2008.
- [17] M. H. Lim, "A Study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Master thesis, Jeonju University, 2012.
- [18] D. H. Chae,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Ph.D.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2013.
- [19] J. Y. Lee, "The Comparison of nurses' cultural competence from the perception of nurses and foreign patients", Master thesis, Yeonsei University, 2014.
- [20]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Vol. 26, No. 1, pp.94-106, 1996.
- [21]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6.
- [22] N. H. Kim, S. Y. Lim,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4, pp.169-184, 2014.
- [23] H. K. Jeon,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for subjec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 Master thesis, Gacheon University, 2015.
- [24] S. Leddy, J. M. Pepper, "Conceptual bases of professional nursing", Lippincott, Philadelphia, 1985.
- [25] S. H. Jung, "An influ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cording to students's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 on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2015.

- [26] K. H. Kim, J. H. Kwon, "Testing models of relation to academic & career stress, acceptance behavior, and th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1, No. 4, pp.43-60, 2014.
- [27] I. S. Lee, J. Y. Cho,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283-290, 2014.
- [28] Y. S. Seo,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415-423, 2014.
- [29] K. J. Cho, M. R. Song, "Formation and Changing Pattern of Nursing Persp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3, No. 1, pp.17-35, 1997.
- [30] C. K. Lee, Y. S. Park, H. K. Lee, K. J. Lee,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337-346, 2015.
- [31] T. Leopord, "Exploring diversity in nursing education: Research finding.",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Vol. 13, No. 2, pp.87-96, 2006.
- [32] S. O. Yang, M. S. Kwon, S. H. Lee,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286-295, 2012.
- [33] E. M. Lee, S. H. Kim, "Influence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459-469, 2017.
- [34] L. W. K. Geiger, J. S. 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 19, pp.50-58, 1988.
- [35] J. A.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325-334, 2004.

임 정 혜(Lim, Jung Hye)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11월 ~ 현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감염관리, 중양환자간호

· E-Mail : blueljh22@naver.com